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두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1억 원

-모투자신탁 221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0일

- 클래스 S-P2 : 2014년 12월 1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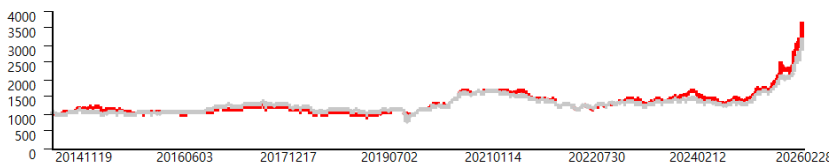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9.48%	62.87%	112.54%	159.23%	160.37%	199.55%	131.56%	263.07%
클래스 C	19.35%	62.37%	111.18%	155.64%	152.93%	186.57%	114.84%	206.00%
클래스 C-E	19.39%	62.52%	111.60%	156.75%	155.22%	190.56%	119.92%	183.76%
클래스 S-P2	19.40%	62.57%	111.73%	157.09%	155.94%	191.83%	121.71%	245.45%
벤치마크	19.52%	59.02%	95.99%	146.53%	136.31%	158.79%	107.24%	217.4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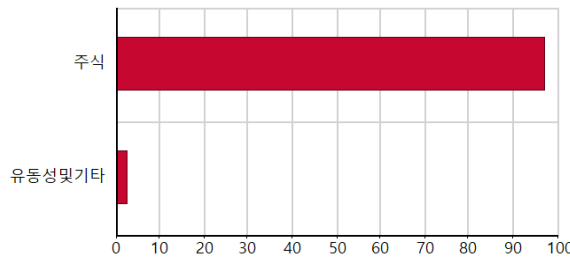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2월말, 모두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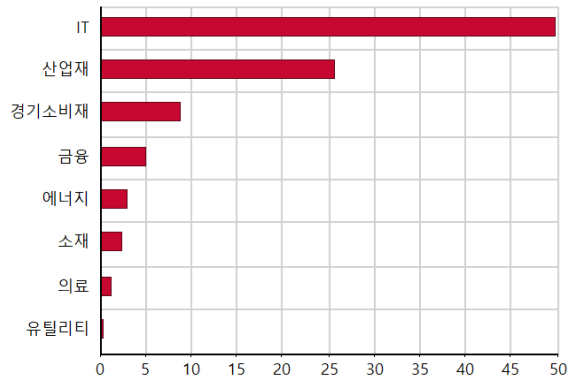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7.0
2	유동성및기타	3.0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49.8
2	산업재	25.7
3	경기소비재	9.0
4	금융	5.1
5	에너지	3.1
6	소재	2.4
7	의료	1.3
8	유틸리티	0.5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2월말, 모두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6.4	SK스퀘어	금융	3.0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6.0	세트렉아이	운송장비.부품	2.9
한국항공우주	운송장비.부품	4.5	한국피아이엠	운송장비.부품	2.3
미래에셋증권	증권	4.2	대우건설	건설	2.1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3.6	한전기술	일반서비스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보수 및 수수료

####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1.535% (판매 0.95%)
  - 클래스 C-E : 총 연 1.055% (판매 0.47%)
  - 클래스 S-P2 : 총 연 0.935% (판매 0.35%)
- (공통사항)

운용 0.54%, 신탁 0.03%, 사무관리0.015%

#### 선취수수료

클래스 C, C-E, S-P2 :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2월 KOSPI는 전월 대비 19.52% 상승한 6,244.13pt, KOSDAQ은 3.77% 상승한 1,192.7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월 중 사상 처음으로 5,000pt선을 돌파했던 KOSPI 지수는 2월에도 랠리를 지속하면서 6,000pt를 돌파했습니다. 2월 초부터 약 2주간의 숨 고르기 이후 지수는 연휴 종료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레밸업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향상되면서 지수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고,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월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시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한 증권, 로봇산업으로의 신성장 모멘텀이 반영된 자동차, 지속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진 반도체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수를 단기간에 아웃퍼폼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던 미디어와 엔터 투어, 일부 선주들의 중국 조선사로의 LNG선 발주로 인해 선가 상승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 조선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0원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상승한 67.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 별로는 기관(15.6조 원), 개인(3.4조 원)이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19.9조 원)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1월 KOSPI 지수의 급등 이후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던 지수는 2월 연휴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도주 외에 종목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보해 시장 상승세에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 금융, 유통 등의 업종에서 신규 종목의 비중을 늘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반도체, 자동차부품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전자부품 업종과 보험업종의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 은행 업종의 미보유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한국 증시 거래 대금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와 스페이스X 등의 투자 자산 가치상승, 대규모 주주환원 발표가 있었던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휴머노이드 항 핵심 부품 공급이 기대되는 한국피아이엠, 보수적인 비용 처리로 25년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향후 실적 개선과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대우건설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로보티즈,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한 로봇 비즈니스의 구체화로 그룹 전체가 상승했던 기아의 미보유 효과, 25년 4분기 이익, 배당, 자사주 매입 규모들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KB금융의 미보유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3월 국내 시장은 1,2월의 강한 상승세 이후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고, 미국 증시가 관세 노이즈와 시주 불안 등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1,2월 가파른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 갈등의 본격화 시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단기간에 깊은 지수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를 원치 않음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초기 양측의 강한 공방 이후에 해결책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의 지수 상승세가 실적 상승세에 기인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수 조정 시 저점 매수 수급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KOSPI 지수가 반도체 중심의 강한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변동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인입니다. 반등 과정에서는 주도주 중심의 강세를 예상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본격화했습니다. 1, 2월 가팔랐던 지수의 상승세를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나왔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주식의 차익실현 욕구를 더 강하게 자극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유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란 내전으로 확대되어 장기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 요인이 맞습니다만, 전쟁 직후 KOSPI 지수는 이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가장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이슈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지수의 상승은 밸류에이션 확장이 아닌 이익 추정치의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실적 추정치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디램 평가 협상은 기존 50% 내외의 상승에서 100% 이상의 상승으로 확인이 되었고, 2분기 평가에 대한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어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 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에 실전 배치 경험이 없는 무기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였고, 향후 수출 물량 확대와 단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이후 수주 모멘텀 공백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덜했던 상황에서 다시 비중을 늘려 대응해 볼 기회가 생긴 상황입니다. 2월 지수의 상승 과정에서 주도주의 확산이 있었다면, 3월 전쟁으로 인한 지수 조정 후의 상승 과정에서는 다시 주도주 중심의 압축된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를 줄여 주도주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 대응해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